

여자들의 증거

마태복음 28:1-10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즉 주간의 첫날 새벽, 동이 터오는 시간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막 16:2),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보려고 왔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막 16:1),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여자들을 말한다(눅 24:1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여자들의 증거는 한두 명의 여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들의 증거이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왔다(막 16:1; 눅 23:55-56; 24:1). 이것은 예수께 대한 여자들의 거룩한 사랑과 정성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고 인간적으로 불쌍한 주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 썩는 냄새를 막으려 했던 것 같다. 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것 같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성도에게는 최선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문으로부터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주께서 누이신 무덤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현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필요하다면 이런 현상을 사용하실 것이다. 둘째,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날 두 명의 천사들이 그 무덤에 있었다고 증거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특별섭리의 일들에 동원된다. 셋째, 천사는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내었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천사는 힘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천사들은 거룩하고 민첩하다. 넷째, 수직하던 병사들은 무서워 떨었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실 때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없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말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었다. 둘째로, 와서 주께서(전통본문)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그를 누웠던 자리가 비었음을 확인하였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증거한 첫 번째 증거이다. 셋째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은 실의에 찬 제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고 그 소식은 그들에게 예수께 대한 확신을 주고, 기쁨과 위로와 힘을 줄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부활 사실의 전달, 부활 사실의 근거 제시(빈 무덤), 부활 사실 전달의 일을 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본 자들의 증언, 즉 신약성경이 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신 죽음임을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하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길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전통본문에는 9절 초두에 “그런데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가고 있었을 때, 보라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길에서 여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의 발을 붙잡기까지 하였다.

본문은 여자들이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증거한다. ‘경배한다’는 원어(프로스퀴네오 προσκυνέω)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였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지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금하였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다(행 10:25-26). 사도 요한이 한번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그 천사는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고(계 19:10), 또 한번 그러했을 때도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다(계 22:8-9).

부활하신 주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 여기에 예수님의 인성(人性)이 나타나 있다. 주께서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두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는 인성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주의 이 말씀은 또한 그의 겹손을 나타낸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될 수 있는가? 그는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신가?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즐거이 우리의 형제로, 또 우리의 친구로 자신을 낮추셨다. 주의 제자들은 주의 겹손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형제들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되고 겸손히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하였다(고후 1:24).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도 그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도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예수께서 처음 전도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다. 그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주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행 1:11). 주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주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 거기서 그는 그들에게 말씀의 사명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셨다.

사도행전 1:3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증거한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가르치신 일은 주로 갈릴리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낙망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재무장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주께로부터 전도의 대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본문은 여자들의 증거를 기록한다. 여자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보았다. 천사들은 주께서 부활하셨음과 그의 누이셨던 곳이 비었음을 증거했고 여자들은 그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다.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나라고 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 본문은 여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그가 묻히셨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뵈었고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였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성경이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임을 알고 그 내용을 다 믿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께서는 무덤에 묻히신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또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버리신 자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이시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시며 일하시는 신적 구주이시다. 또 우리는 여자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 예수님을 뵈듯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함으로 확고한 지식과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를 믿고 따라야 한다.